

강진청자, 청자본향자부심 빛났다

대한민국 수공예 문화상품 공모대전 2년 연속 금상 올해 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 강광목 대표 작품 수상



강진군은 '2021년 대한민국 수공예 문화상품 공모대전'에서 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의 강광목 대표의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 공모대전은 (사)한국수공예진흥회

가 주최·주관하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후원했으며, 도(초)자, 목(질), 금속(보석), 섬유(피혁), 종이 기타 등 6개 부문에 걸쳐 다수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모대전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4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23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수공예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수공예 문화상품 발굴과 창작 의욕을 북돋워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강진지역의 청자업체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청자 도시 강진의 자부심'을 전국에 과시했다는 평가이다.

올해 금상작은 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 강광목 대표의 작품 '休-適猶不及'으로 계영배(戒盈杯)에 담겨있는 절제된 음주문화를 청자를 통해 즐기자는 것을 표현했으며 지난해에는 도우

김유성 대표가 '청자 연리문 금채 대기'로 역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금상작에는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대한민국 수공예 문화상품 공모대전에서 강진청자가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강진청자만의 고유성과 문화 자부심의 명맥을 이어가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뱀장어 치어 방류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나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계획 일환, 관내 저수지 7개소 치어 방류

장흥군은 지난 23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6개 읍면 저수지 7개소에 뱀장어 치어 10,034마리를 방류했다.

전라남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공공용 수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치어 종묘 방류는 부가 가치가 높은 내

수면 어종을 방류해 민물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흥군은 탐진강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앞으로 치어 양성·방류 및 내수면 어업계 구성 지원을 강화해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계 회복을 기본으로 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붕어 등과 서식환경 변화로 사라져 가고 있는 품종을 선택(쏘가리, 깔개치 등)하여 치어 방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방시능 오염수가 바닷물을 유입하게 되면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내수면 어종을 국민들이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남 민



물고기연구소와 관내 탐진강수산연구센터와 함께 내수면 어종 자원 증강을 위해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이 최근 조도면사무소에서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이번 '부동산 이동민원실'은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담당자와 자격보증인(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2건의 확인

진도군, 조도면민 위한 부동산 이동민원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현장 접수 등

서를 접수했다.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도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확인서 발급 신청, 지적측량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조도면 주민들이 군청이나 법무사 사

무소 등의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운 시기에 조도면 주민들을 위해 특조법 확인서 접수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 사업 공모 선정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주축 10개 연구기관 참여

완도군은 해수부가 주관한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화를 위해 식약처 등 인증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효성 및 표준화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 기반 실증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주축으로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유효성 소재 실증 장비 구축과 함께 해조류 유래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개발 및 사업화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16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연구기관 1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를 완도군 신지면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구축된다.

현재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소재의 유효성 실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유효성 실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관련 기업에서는 원물의 단순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을 통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내 다양한 바이오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은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가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표준화를 통한 소재의 규격 설정, 기능성 및 안전성 실증이 필수적이다."며 "본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사업화에 필요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와 소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2년에 신지면 해양바이오연구단지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를 건립하여 기업 연구소 10곳과 스타트업 30개 기업, 공동실험실을 갖춘 연구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23년까지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완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해조류를 활용해 해양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소재 공급을 위한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

이러한 군의 다양한 해양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바이오 소재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해양바이오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필수적인 연구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며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실시

해남군은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정성지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발굴한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대해 1차 전문가 서면검토를 거쳐 2차 지표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평가지표 담당공무원의 평가방향 이해, 평가 방식에 맞는 보고서 작성요령 습득 등 정부합동평가에 서도 비중이 높은 정성지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실시되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며 5대 국정목표 116개(정량 94, 정성22)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자체 행정 전반의 추진 성과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인 만큼 철저한 지표 분석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평가대비는 물론 군정 추진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